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追 錄)

〈1993.11 ~ 1994.10〉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차 례

▣ 1993年 3

▣ 1994年 23

1993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p> <p>權寧海 국방부 장관 KBS-TV 對談</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우발적 도발 對應必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核問題는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되 북한의 자세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임. ○ 국제안보기구의 對北制裁時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우발적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한다는 것이 이번 韓美安保會議(11.3~4)에서 논의하려는 문제임.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國際的 對北制裁나 그것에 의한 도발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것임.
<p>1993. 11. 2</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총회 決議案 수용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유엔결의를 존중하여 核開發疑惑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 ○ 이번 결의는 북한의 國際的 義務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세계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3 人民武力部 副部長 김광진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的 대응불사 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2 남조선 國防長官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核開發을 걸고들면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이것은 北과 南의 특사교환과 조·미회담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집경으로 끌어가려는 기도임. ○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음. ○ 우리식 社會主義를 철옹성같이 지켜선 인민군대는 우리에게 불질을 하는자들을 천백배로 징벌할 것임.
<p>1993. 11. 3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북측단장 박영수 對南電</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實務代表接觸 개최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國防長官은 11.2 특별기자회견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개발을 걸고 들면서 군사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特使交換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자체를 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4</p> <p>特使交換 실무대표 접촉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電 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接觸에 즉각호응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간에 합의한 會談日字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은 북측이 과연 특사교환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 국제사회는 북측이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준수치 않고 의무 불이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북측은 우리측 國防部 長官의 발언을 시비하기 이전에 이같은 상황이 오지않도록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임. ○ 북측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루속히 실무대표접촉에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p>1993. 11. 4</p> <p>제24차 韓美安保 協議會議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 중단문제 「留保」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T/S 훈련 중단문제는 北韓의 NPT복귀, IAEA의 특별사찰 및 남북상호사찰 수용 등 획기적 태도변화시 검토키로 함. ○ 北韓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하며 주한 미군 2단계 감축을 유보함. ○ '53이후 韓美연합사령관의 관할 평시작전통제권을 94.12.1까지 한국군에 이양함. ○ 한반도 위기고조시 美國은 신속전개억제전력(FDO)을 즉각 전개키로 함.

■ 1993年 11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17</p> <p>金三勳 核問題 전담대사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핵사찰·南北對話재개」立場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먼저 IAEA 통상사찰을 수용하고 南北對話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며, 그런후에야 T/S훈련중단과 美·北韓 3단계 회담개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p>1993. 11. 23</p> <p>韓·美 頂上會談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관련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方式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大통령과 美 클린턴대통령은 北韓核問題와 관련한 정상회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IAEA 및 남북한 동시사찰 수용시 보상조치 강구 - 北韓核問題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 방식 채택 - 외교적 해결 실패시 북한 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한다는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p>1993. 11. 23</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T/S訓練 중지문제 韓國이 최종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에 대해서는 韓-美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키로 했지만 최종결정은 한국정부가 내리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합의하였음. ○ 北韓 核問題해결의 시한은 한계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4</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포로수용소 遺品관련 인수자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 5월 5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조선인민군포로들의 便紙와 遺物들을 넘겨줄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우리는 귀 赤十字社가 시급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아직 함구무언으로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 赤十字會는 오는 12월 14일 그 자료를 넘겨받을 해당인원 2명을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통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3 姜英勳 「韓赤」 總裁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人民軍捕虜 遺品 불관여입장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도 인민군포로들의 자료 인도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大韓赤十字社가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음. ○ 나는 귀하가 10월 14일 電話通知文에서 제기한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전쟁포로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임. ○ 나는 귀 적십자사가 본연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南北離散家族 문제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9</p> <p>外交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탈퇴 再宣稱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美國大統領 클린턴이 그 누가 공격을 한다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폭언을 한데이어 미국의 공식인물들속에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대화에 역행하는 언동들이 나오고 있음. ○ 美國이 核問題解決을 바란다면 압력의 방법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담에 성근하게 나와야 할 것임. ○ 미국이 끝내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을 백지화하고 회담을 그만두겠다면 우리도 조약탈퇴 효력발생을 더이상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임. ○ 核問題의 평화적 해결의 성공여부는 美國이 對朝鮮 압살정책을 포기할 주건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
<p>1993. 12. 7</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인민군포로 遺品 거둬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귀하가 12. 3 電話通知文에서 적십자 인도주의이념에 어긋나게 無責任하고 진실치 못한 입장을 취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귀 赤十字社가 김인서·함세환 송환요구에 전면 거부태도를 취하는 것은 赤十字 人道主義 견지에서 극히 온당치 못한 책임회피로 된다고 인정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1 南北連絡事務所 李俊求소장 대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官 접촉 提議</p> <p>○ 갈리 UN사무총장일행이 판문점을 경유 귀족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편의제공 등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連絡官 접촉을 1993. 12. 23 오전 11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3.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귀 적십자사가 거제도 인민군포로들의 便紙와 遺物들을 우리측에 넘겨주며 김인서·함세환 송환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무조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1993. 12. 9	<p>特使交換問題 早期協議 배제</p>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 美國사이에 제3단계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一括妥決案이 합의되면 기구에 신고된 대상에 한해 완전한 사찰로 이어지게 될 것은 명백함. ○ 미국이 北南特使交換問題를 조-미 회담의 전제로 제기한 것은 타당한 것이 못되며, 우리는 이를 실현시키자는 입장으로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그 실현여부가 달려있음. ○ 美國側이 우리의 이런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美國이 더이상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1993. 12. 17	<p>特使交換問題 早期協議 拒否</p>
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북남 特使交換을 北-美 3차 회담 전제조건으로 거론, 고의적으로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會談에 임하는 그들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美國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對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 ○ 美國이 대화진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억압정책을 계속한다면 3차 北-美 會談이 열린다해도 포괄적해결의 공식에 대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3</p> <p>金泳三 대통령, 갈리 유엔사무총 장 회동시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해결시 對北經協 추진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경우든 北韓核開發은 중지돼야 하며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 과의 경제협력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있음. ○ 北韓이 가장 우려하는 吸收統一에는 반대하며 대화를 통해 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함. ○ 核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南北對話가 반드시 진전돼야 하며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p>1993. 12. 23</p> <p>軍停委 비서장 접촉 (판문점 중감위 휴게실)</p>	<p style="text-align: center;">갈리 유엔사무총장 板門店 通過 관련 절차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위 유엔사측과 북측은 갈리 유엔 사무총장일행이 12. 24, 12:00 판문점 경유 入北한다는데 합의하였음.
<p>1993. 12. 27</p> <p>韓昇洲 외무부 장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남북대화, 後 3단계 美·北韓 회담」闡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의 의미있는 진전이란 核問題를 논의할 책임있는 인사들의 교환을 말함. ○ 이같은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 은 열리기 어려움. ○ 북한은 南北對話에 응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 만큼 북한 핵문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타결가능성이 높아졌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3</p> <p>軍停委 비서장 접촉 (관문점 중감위 휴게실)</p>	<p style="text-align: center;">갈리 유엔사무총장 板門店通過 관련 절차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위 북측과 유엔사측은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12. 24, 12:00 관문점 경유 訪北한다는데 합의하였음.
<p>1993. 12. 30</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施設 제한사찰만 可能하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접촉에서 美國側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제거 조치의 일환으로 T/S訓練 중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음. ○ 우리는 이미 신고한 核施設들을 법적요구에 의한 정기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허용키로 하였음. ○ 이런 진전에 토대하여 제3단계 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 종식, 朝·美 關係 개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 1993年 12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3. 12. 30	<p>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등을 일괄타결키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이 일괄타결 방식을 받아들여 쌍방이 동시에 움직여나가는 데 뒤늦게나마 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만약 일부 세력들이 또다시 朝·美 會談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르는 선택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임.

1994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p> <p>金泳三 대통령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改革·開放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北韓核問題가 해결되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韓半島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함. ○ 북한의 동포들도 개방과 개혁의 세계적 조류와 신한국 창조라는 민족응비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p>1994. 1. 5</p> <p>李榮德 부총리겸 統一院長官 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離散家族問題 우선해결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도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南北間 和解와 공존공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되어야 함. ○ 人權問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離散家族이며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북한이 적극 나설것을 촉구함. ○ 南北關係는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 ○ 北韓이 대화를 제기해도 정부의 원칙에 맞지않을 경우 무조건 응하지는 않을 것임.
<p>1994. 1. 6</p> <p>金泳三 대통령 年頭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핵문제 해결, 後 남북정상회담 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開發은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큰 화약고로서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안됨. ○ 南北頂上會談과 관련 회담만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北韓核問題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며 다행히 北韓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 金日成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核問題, 美·北韓會談 통한 해결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해에 祖國統一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軍事演習을 빈번히 벌이고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공조체제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협한 국면에 몰아 넣었음. ○ 南朝鮮의 文民政權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역대군부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으며 더이상 지켜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음. ○ 조선반도에 핵문기를 끌어들이고 있지도 않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나온 것도 미국이므로 核問題는 朝-美會談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2</p> <p>李基澤 민주당 대표 연두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 개선을 위해 金日成 면담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核問題 해결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남북간 경제협력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 南北의 특정지역을 상호개방하며 서로의 經濟投資를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미 체결된 南北合意書는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離散家族의 상봉은 당장 실현되어야 함. ○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南北關係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 주석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
<p>1994. 1. 20</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故 文益煥목사 弔意訪問團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聯」은 이미 우리대법원 확정판결('92.7.28)에 의해 국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우리측 지역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北韓核問題 해결지연으로 南北關係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의 제의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 ○ 北韓側은 하루빨리 核問題를 해결하고 남북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오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쌍방 주민이 자유롭게 南과 北을 오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5</p> <p>最高人民會議議長 양형섭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民主黨代表의 平壤訪問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基澤 民主黨 代表의 平壤訪問意思는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함. ○ 지금이야말로 北과 南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民族内部의 切實한 對峙상태를 해소하고 새국면을 열어나갈 方道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임. ○ 나는 李基澤 代表가 올해에 첫걸음으로 平壤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p>1994. 1. 20</p> <p>「汎民聯」 북측 本부 의장 백인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故 文益煥목사 弔意訪問團 파견통보</p> <p>* 수신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人의 영전에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에 弔意 訪問團을 보내기로 하였음. ○ 우리방문단이 서울에 가는 것과 關連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1. 21, 10 : 00 판문점 中 央 外 交 部 會 議 室에서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함. ○ 우리측에서는 北南連絡事務所 북측연락대표 2명을 내보내려하므로 남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바람.

■ 1994年 1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20</p> <p>「汎民聯」 북측 본부 의장 백인 준 對南電通文</p>	<p>故 文益煥牧師 葬禮式 참가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 : 장례대책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弔意 訪問團을 보내어 남측의 각계 인사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위문하기로 하였음. ○ 「汎民聯」 북측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조의 방문단이 판문점을 통과 文益煥牧師의 장례식에 참가하며, 오후에 귀로에 오를 예정임. ○ 弔意 訪問團의 판문점 통과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남측 統一院長官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기대함. 		
<p>1994. 1. 21</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IAEA의 臨時查察 促求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機構와의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查察範圍를 제기했음. ○ 國際原子力機構는 朝-美 사이에 합의된대로 이번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에 상응하게 사찰범위를 확정하는데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임. ○ 擔保協定에 따른 定期 및 非定期查察 문제는 제3단계 조-미회담이 열려 일괄타결안이 합의되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p>1994. 1. 24</p> <p>朝鮮天道教會 위원장 류미영 對南電通文</p>	<p>東學革命 100주년 南北共同紀念 협의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척양 · 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밑에 전개된 갑오농민전쟁 100돌이 되는 해임. ○ 쌍방이 이미 합의한대로 同 100돌에 관한 共同紀念問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2. 3. 10 : 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함. 		
<p>1994. 1. 31</p> <p>外交部 代辯人</p>	<p>北韓 核查察問題 관련 3개 立場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서기국은 NPT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1 天道教 중앙총부 吳益濟 교령 對 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東學革命 100주년 共同紀念 협의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북측 인사의 남한 방문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남북천도교 판문점 실무접촉은 추후 3월초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는 3월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것으로 확신하며 또 반드시 풀리도록 해야 할 것임.
<p>1994. 2. 1 外務部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IAEA査察 早速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IAEA사찰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인 입장을 알려오기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聲明</p>	<p>한 지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이 아니라 앞으로 朝-美 會談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 조약복귀에 맞먹는 전면사찰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會談을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면서도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지연술책이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음. ○ 조성된 위기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함 <p>첫째, 美國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내 뒤집어 었는다면 우리도 더이상 미국과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p> <p>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들에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효력 발생정지, 흑연감속원자로 체계의 포기 등 모든 선의적인 조치와 공약들이 다 포함됨.</p> <p>둘째, 미국이 朝-美 會談을 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구태여 회담을 할 생각이 없음.</p> <p>셋째,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하겠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방도를 선택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강경보수파들은 도래할 파국적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저야하며, 남조선당국자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배치검토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994. 2. 11 韓昇洲 外務部長 官 記者會見	T/ S 訓練과 北韓核問題 連繫推進 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트리엇 미사일문제에 관한 최종결정은 IAEA 이사회 이후로 미루기로 페리 美 국방장관과 합의했음. ○ T/S훈련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즉 핵사찰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는 실시한다는게 현재의 입장임. ○ IAEA이사회나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이를 존중, 협력할 것임.
1994. 2. 16 朱燮植 청와대 代辯人 聲明	北韓의 IAEA査察受諾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北韓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2. 15)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 ○ 北韓이 대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알찬 南北對話가 진행되기를 기대함.
1994. 2. 18 李榮德 부총리 겸 統一院長官, 基本合意書 발효	南北特使交換時 核統制共同委 再開 제의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特使交換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단중인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북한에 정식으로 제의할 것임. ○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南北關係 개선은 진전될 것으로 낙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12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관련 美國의 對北壓力 中止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에서는 IAEA사찰은 순수담보의 連續性 保障을 위한 사찰로 되어야한다는데 대하여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朝-美 3단계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와 朝-美關係改善 전반을 토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해 왔음. ○ IAEA에서도 종전의 전면사찰 주장에서 물러나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하겠다는 시사가 있었음. ○ 美國이 실제로 對話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행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반공화국 압력소동부터 중지해야 함.

■ 1994年 2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2주년 세미나 發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韓間 3단계회담은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21</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IAEA 査察合意(2. 15)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합의된 査察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NPT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에 상응한 사찰로서 지난번 사찰이후 核物質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음. ○ 지난 朝·美 뉴욕접촉(12. 29)에서 쌍방은 核問題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당면조치로서 담보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받는 문제, 남조선측이 特使交換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해오면 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美國이 '94 팀스피리트 군사연습 중지를 선포할데 대한 문제, 3단계 朝·美會談 날짜를 공동으로 발표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이미 朝·美사이에 약속된 대로 차후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담보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구의 사찰을 속히 진행하며 나아가서 3단계 朝·美회담을 개최하고 핵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는 국면을 열어놓는 것으로 될 것임. ○ 우리가 NPT탈퇴를 선포하게 된 근본이유의 하나가 특별사찰에 있는 것만치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조약밖으로 떠밀어내자는 것이며, 정기 및 비정기사찰문제는 3단계 朝·美會談이 열리면 核問題의 일괄타결방식의 테두리내에서 논의될 문제임. ○ 만일 또다시 美國이 동시행동조치를 합의하는데 당치않는 조건을 붙이거나 압력에 매달리면서 核問題 해결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와 기구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없게 될 것은 물론 자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
<p>1994. 2. 24</p> <p>北韓赤十字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의 사할린同胞 歸還推進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은 사할린 거주 조선동포 문제가 純粹人道主義的 問題로 됐다는데 靑변을 늘어놓으면서 일본 정부로 부터 몇푼의 여비를 받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25</p> <p>金泳三 大統領 就任 1주년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透明性 保障前이라도 南北頂上會談 推進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확실하게 核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核開發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 ○ 核開發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南北頂上會談을 추진하겠음. ○ 特使交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金主席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하자는 것임. ○ 頂上會談을 하면 核問題는 물론 남북한 共存共榮과 생존문제, 통일 문제,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좀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임. ○ 北韓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진실한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南北共存共榮의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경제공동개발을 서두를 용의가 있음. ○ T/S 訓練 중단문제는 IAEA사찰과 南北韓의 충실한 對話가 충족이 되면 한국정부에서 조건부로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것임.
<p>1994. 2. 28</p> <p>特使交換 實務代 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實務代表接觸 3. 1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과 北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최고 당국자의 뜻에 따라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것임. ○ 實務接觸을 재개하여 빠른 시간내에 特使交換에 필요한 모든 절차 문제를 매듭짓고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94. 3. 1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최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4	<p>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결말지으려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동포문제는 현재 사할린에 居住하는 4만명의 동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以前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 전체를 상대로 일본정부가 사죄와 전후보상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임. ○ 우리는 以前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남조선과 일본당국자들의 교활한 移住策動을 반대배격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 나가리라 확신함.
<p>1994. 2. 28</p> <p>北韓, 美·北韓 實務接觸 合意文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 3. 21 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과 美國은 '94. 3. 1 다음 4가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음. - 美國은 남한의 T/S훈련 중지에 동의한다는 결정 발표 -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 시작 및 IAEA와 북한사이에 합의된 기간내 완료 -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재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8	당국자의 특사교환을 위한 제 4 차 實務代表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 함.
1994. 3. 2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의 修正제의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實務代表接觸이 중단되고 진전되지 못했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北側이 修正提議한 대로 3.3,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 나갈 것 임.
1994. 3. 3 特使交換 제 4 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 13개조 28개항으로 된 「남북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 ○ 북측의 4개항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이는 부당·부적절·불필요한 주장이므로 당장 철회하고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함.
1994. 3. 3 國防部 代辯人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94 T/ S 訓練 條件附 中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 양국은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南北韓 特使交換을 통해 核問題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올해 T/S 訓練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8	- 3단계 朝·美會談을 '94. 3. 21 제네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		
1994. 3. 1	제 4차 實務代表接觸 3.3 개최 修正提議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團長 박영수 對南 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代表接觸을 재개하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모든 核戰爭演習을 중지하며 核問題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함. ○ 오는 3.3, 10:00 제 4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한 래왕절차에 따라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갈 것임. 		
1994. 3. 3	主要 提議·主張 內容		
特使交換 제 4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의 회담중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특사교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4개항을 제시하면서 오늘 접촉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의 핵전쟁연습 중지 ii) 국제공조체제 포기 iii)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무기 반입 중지 iv) 金泳三 대통령의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 공식취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9</p> <p>特使交換 제 5 차 實務代表接觸 (관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使交換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北韓側의 「4개항 요구조건」 철회 및 특사교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함. ○ 金大統領의 발언 취소 요구와 관련, 북한측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 고 방송매체를 통한 비방·중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함.
<p>1994. 3. 12</p> <p>特使交換 제 6 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이른바 「4개 要求條件」은 그 원인이 북한핵 의혹에 있음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4</p> <p>外交部 제1副部長 강석주 談話</p>	<p>美·北韓 實務接觸 合意(2.25)關聯 立場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접촉 合意文에는 동시행동조치의 하나로 북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에 대하여 언급되었을 뿐 특사교환의 실현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음. ○ 特使交換이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교환의 의미를 순수 핵문제 토의 일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그를 통하여 朝·美會談에 계동을 거는 한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北南對決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임. ○ 남조선 당국이 核問題 토의에 끼어들려는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데로 명백히 입장전환을 할 때에만 북남 특사교환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美國이 北南 特使交換과 IAEA 사찰문제를 '94 T/S 훈련중지와 제3단계 朝·美會談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엄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움직일데 대한 합의를 또다시 되집어엮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임. ○ 만일 IAEA와 남조선 당국이 이에 어긋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미국이 그를 구실로 '94 T/S 훈련중지 이행을 중도 반단하고 제3단계 朝·美會談 개최를 지연시키려 든다면 우리 역시 이 미 시작된 IAEA의 사찰을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없음. 		
<p>1994. 3. 9</p> <p>特使交換 제 5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수정안을 제시하면서도 「4개항 요구조건」에 대한 先입장표명을 요구함으로써 절차문제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였음. ○ 수정안에서는 특사의 임무로 기존 5개항 외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데 대한 문제」 등 2개항을 추가하였음. 		
<p>1994. 3. 12</p> <p>特使交換 제 6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측이 「4개 要求條件」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것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19 特使交換 제 8 차 實務代表接觸 (관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IAEA의 査察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우리측은 3개항의 조치를 긴급제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우리측 最高當局者에 대한 비방, 중상 중지 ii) 우리 국민에 대한 반정부투쟁선동 즉각 중지 iii)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명백한 입장 표시
<p>1994. 3. 19 李榮德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對話를 통한 核問題解決 입장 거듭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核問題 解決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 핵문제를 對話를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며 平和를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음. ○ 北韓이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18</p> <p>原子力總局 代辯 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 査察結果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범위의 査察活動을 전부 허용 해주고 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었음. ○ 사찰단이 이번에 진행한 査察活動에서는 핵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증할 수 있으며, 담보의 연속성도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음. ○ IAEA가 우리의 核問題의 공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사찰결과에 대해서 서둘러 내린 부당한 평가를 철회해야 함. ○ IAEA가 우리를 걸고들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소동을 벌이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로 그에 대응할 것임.
<p>1994. 3. 19</p> <p>特使交換 제 8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제 6차 實務代表接觸시 철회하였던 「4개 요구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질차문제 토의를 회피하였음. ○ 남측은 美 · 北韓會談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무대표접촉을 악용하였다는 것을 인정, 사죄하여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1</p> <p>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對話를 통한 核問題解決 呼應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대표단 聲明을 통해 實務代表接觸이 결렬된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왜곡·비난한 것은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핵 개발 의혹에 대한 國際的 壓力을 모면해 보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임. ○ 우리 내부의 혼란조성과 체제전복을 위한 냉전적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 核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의 문 또한 열려있음. ○ 북한측이 대화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의 평화의지와 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둠.
<p>1994. 3. 21</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問題 관련 決議案 採擇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특별이사회가 안보리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3. 21)한 것을 주목하며 국제사회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함. ○ 북한이 하루빨리 안전조치협정상의 제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핵개발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함.
<p>1994. 3. 23</p> <p>國會 外務統一委 決議案</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全面査察 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北韓 核疑惑을 조속한 시일내 해소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여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1</p> <p>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代表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결렬 責任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接觸의 전과정은 北과 南이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서로 다른 근본입장을 보여주었음. ○ 朝·美會談과 北南特使交換은 원래 별개의 문제로서 남조선이 조·미회담을 가로막는데 특사교환문제를 악용하는 것 자체가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임. ○ 우리에게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결정한 도발행위는 사실상 실무대표접촉 파괴선언이고 特使交換 포기 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적인 대결 선언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特使交換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끝내 북남실무접촉을 결렬시킨데 대해 단호히 규탄함.
<p>1994. 3. 21</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지난 2. 25 朝·美뉴욕접촉 합의문을 전면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를 하였음. ○ 美國이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고 朝·美會談을 결렬시키는 조건에서 우리도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의무를 더는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는 제 3 단계 朝·美會談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기구의 담보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더이상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음. ○ 美國이 朝·美會談을 끝내 회피하고 '94 T/S 훈련을 재개하거나 IAEA가 사찰결과를 왜곡하며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압력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는 지난해 3.12부 공화국정부 성명에서 천명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IAEA 査察活動을 즉각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은 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여야 함. ○ 북한은 핵의혹 해소는 물론 南北會談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
1994. 3. 25 外務部 當局者 論評	러시아의 「8자회담」 提議 拒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의 北韓核問題 관련 제의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그 취지를 평가함. ○ 美·日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로서는 UN 安保理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4</p> <p>原子力總局 代辯 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問題 安保理回附 決議案採擇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서기국이 장갑복스구역에서 묻혀내기 시료 한 두개를 자기들의 요구대로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사화확실험소에서 재처리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생억자를 부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IAEA서기국은 이번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또다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不公正性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음. ○ 만일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IAEA서기국의 不公正性 확대에 상응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1994. 3. 28</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패트리엇 미사일 韓國配置 中止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核威脅을 하지말테 대한 朝·美共同聲명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p> <p>外務部 當局者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 安保理 議長聲明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해 이번 의장성명서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 ○ 政府는 앞으로 핵무기 非擴散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形上으로 놓고 볼 때 크지않은 조선반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음. ○ 美國의 이번 조치는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정전기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됨.
1994. 3. 29 最高人民會議 常 設會議 代辯人 談話	李基澤 民主黨代表의 訪北表明 歡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도들에 의하면 李基澤代表는 남조선당국의 방해가 거듭되는 속에서도 자신의 平壤訪問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3.20에는 빠른 시일안에 평양방문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음. ○ 이 기회에 李基澤 代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平壤訪問이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는 바임. ○ 남조선의 李基澤代表의 평양방문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非核化와 나라의 통일문제 등 북남사이의 현안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1994. 4. 1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	러시아의 多者間協商 提議 拒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가 제재와 압력을 반대하고 政治的 協商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하려는데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러시아의 多務的 協商提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됨. ○ 조선반도의 核問題는 우선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할 정치군사적 문제임.
1994. 4. 1 駐유엔大使 박길 연 記者會見	IAEA의 追加查察 拒否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協商은 미국이 3단계 高位級會談을 향한 토대를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음. ○ 高位級會談 토대마련 문제는 2.25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것을 지키기만 하면 됨. ○ 안보리 의장성명의 추가사찰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행할 수 없음.

■ 1994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4</p> <p>外交部 代辭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안보리 議長聲明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는 우리 核問題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의장성명에 담보협정 이행문제를 꺼들임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하였음. ○ 우리가 朝·美會談을 위하여 NPT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순간부터 담보협정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따라서 담보협정이행이요, 추가사찰이요 하는 것은 공인된 특수지위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음. ○ 美國이 우리와 한 모든 公約을 뒤집어엮고 압력일변도로 나오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朝美會談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힘에는 힘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입장은 시종일관함.
<p>1994. 4. 9</p> <p>林業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시베리아 벌목공 歸順시 拉致行爲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勞働者들의 人權을 모독하면서 調查團 派遣이니 귀순공작이니 하고 소동을 벌이는 것은 북남대결을 해외에까지 확대하여 민족적 반목을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시켜 보려는 계획적인 민족반역 행위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조사단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이거나 그들에 대한 당치않은 귀순공작따위의 놀음을 벌인다면 납치해간 것으로 인정하고 즉시 그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
<p>1994. 4. 11</p> <p>黨·政·社會團 體 聯合會議</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會」召集을 위한 對南便紙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全民族의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2</p> <p>南北連絡事務所 李俊求 所長 對 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對南便紙 接受 拒否通報</p> <p>○ 북측이 우리측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는 정상적인 남북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현재 남북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함.</p> <p>※ 북측은 4.13 동 편지를 방송으로 공개</p>
<p>1994. 4. 12</p> <p>統一院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統一선전전술 기도 中止要求</p> <p>○ 회담석상에서 까지 「서울 불바다」를 운위하던 북한이 과연 민족적 화해를 말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회」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는 원탁회의로 할 수 있을 것임. ○ 대회에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90년대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는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비롯하여 온민족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임. ○ 「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각각 5명의 대표들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5월 중순경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남조선 당국자들이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함으로써 「민족대회」소집을 위하여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p>1994. 4. 11</p> <p>南北連絡事務所 北側所長 이성덕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政·黨·社會團體 聯合會議 便紙傳達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겨주기 위하여 '94. 4. 13,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얽매어 이미 실패로 끝난 바 있는 범민족대회의 재판을 벌임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통일전략전술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함. ○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만 조장하는 정치선전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 ○ 하루속히 IAEA 추가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1994. 4. 13 朱燮植청와대 代 辯人 발표	北韓 별목적 對策 多角檢討 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북한이 南北對話에 응하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별목적문제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하여 왔음. ○ 그러나 北韓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음.
1994. 4. 15 統一安保政策 調 整會議 發表	先 特使交換 推進撤回 및 北韓별목적 歸順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使交換은 정상간의 間接對話로서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태도는 특사교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特使交換을 통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 ○ 核問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함. ○ 南北相互査察 없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정부는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内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8</p> <p>韓·美 高位實務 會談(서울)</p> <p>* 金三勳 핵담당 대사, 美 국무부 갈루치 차관보</p>	<p style="text-align: center;">追加査察 받아야 美·北韓 3段階會談 開催기로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미·북한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제외키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존중함. ○ IAEA 追加査察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에 3단계 美·北韓 會談을 개최함. ○ T/S훈련의 중단여부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과 연계하여 추진 함. ○ 南北對話와 미·북회담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추진토록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6</p> <p>金日成, 美 CNN 방송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核開發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불바다」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 ○ 핵무기를 먼거리로 향해 쓸수 있는 운반수단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토가 좁아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수 없음. ○ 우리는 어떤 전쟁의사도 갖고 있지 않음. 여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며 따라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제 정신이 아님.
<p>1994. 4. 18</p> <p>金日成, 日本 NHK 放送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協商 통한 核問題解決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核武器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제기관의 사찰까지 받은 우리에게 부당한 트집을 잡아 압력을 가하고 있음. ○ 남조선에 核을 반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이고 있지도 않은 核開發 疑惑을 초래한 것도 미국임. ○ 核問題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합의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 이행해 나가면 핵문제는 부드럽게 풀릴 것임. ○ 日·北韓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북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전환해야만 관계개선의 전망이 열릴 것임.
<p>1994. 4. 19</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명백히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의 送還問題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선정전협정과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송환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北南關係를 개선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0 韓·美 國防長官 會談(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2. 25 美·北 合意事項」不履行시 T/S訓練 11월 實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3단계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될 경우 '94 T/S훈련 중단을 고려함. ○ 그러나 北韓이 지난 2월 합의사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94 T/S훈련을 11월경에 실시키로 함. ○ 韓國軍과 駐韓美軍의 전투력 현대화와 연합작전 능력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0</p> <p>「汎民聯」北側 本部議長 백인준 對南電通文 (수신: 통일원장 관)</p>	<p>文益煥牧師 100일 追慕祭 代表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측의 초청에 호응하여 北側代表團을 서울에 내보내기로 하였음. ○ 우리 대표단으로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성원들로 하고 여기에 약 10명의 수원, 기자들을 동행시키려고 함. ○ 귀측이 서울에 나가는 우리 대표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 ○ 우리 代表團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4. 22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동 백인준은 문목사 장례위원회 앞으로도 전통문을 보내 4. 28 추모제에 참가한다고 통보 		
<p>1994. 4. 20</p> <p>外交部 비망록</p>	<p>IAEA의 完全査察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과는 인연이 없는 시료채취와 측정을 허용해주면 IAEA서기국은 지난 시기처럼 불일치를 조작해내고 특별사찰이요 필요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NPT 탈퇴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앞으로 朝·美會談이 열리고 일괄타결원칙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동시행동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의 특수지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임. ○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소동, IAEA서기국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우리의 조약복귀란 상상할 수 없으며, 지금단계에서 담보협정의 이행이란 말도 되지않음. ○ 우리는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상응하게 그것도 朝·美회담의 진척여부에 따라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받아들여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 만일 미국과 IAEA서기국이 계속 부당한 압력소동에 매달린다면 핵問題는 언젠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2</p> <p>姜英勳 韓赤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送還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 3 電話通知文을 통해 이미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北側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함. ○ 북측이 人道主義 문제를 말하려 한다면 송환을 약속하고도 억류하고 있는 동진호 선원들부터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 ○ 北側은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離散家族問題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남북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6</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送還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전쟁시기에 민병으로 활동한 김인서·함세환은 엄연히 전쟁포로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임. ○ 南側이 이와 관계없는 이산가족문제와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적십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들고나온 것은 생억지에 지나지 않음. ○ 우리에게는 남측이 말하는 이른바 「拉北人士」란 없으며, 있다면 남조선에서 살다가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여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만이 있을 뿐임. ○ 南側赤十字社가 진정으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p>1994. 4. 27</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出所轉向者 김병주의 딸 김지현 北送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에 우리는 몇년전에 사망한 비전향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이 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음. ○ 비전향수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죄 아닌 죄로 냉대 받고 가난에 쪼들리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지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는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공화국북반부에 그를 데려다 치료를 받게 하

■ 1994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4. 27	<p>는 것이라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김지현과 그의 형제들이 북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귀 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임. ○ 만일 그가 지금까지 갇지 못한 입원비와 약값, 치료비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는 바임.
1994. 4. 27	<p>5MW 原子爐 시료채취 拒否</p>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에 대한 IAEA의 입회활동에는 노심연료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IAEA의 봉쇄와 감시, IAEA의 봉인 및 감시기재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들에 대한 검사 등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충분한 사찰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만일 정기 및 비정기 사찰범위에 속하는 사찰 활동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朝·美會談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된 다음에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지난 3월 IAEA의 사찰활동에서 제기된 방사화확실험소에 대한 추가사찰문제도 美國과 IAEA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고찰하고 있음. ○ 우리는 최근 북남특사교환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맞게 美國과 IAEA의 차후 동향을 보고 추가사찰 문제도 특례로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이미 그들에게 통보해 주었음.
1994. 4. 28	<p>「平和保障體系」수립을 위한 對美協商 提議</p>
外交部 聲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들인 우리와 美國을 적대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제반 사태는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9</p> <p>外務部 當局者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平和保障體系」 제의관련 核問題 우선해결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한반도의 긴장 및 불안정요인은 北韓의 핵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 北韓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함. ○ 南北韓은 이미 '92. 2. 19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합의하였음. ○ 北側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
<p>1994. 5. 3</p> <p>統一院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停戰協定 遵守 및 군정위 조속 正常化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행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있는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 5조에 위배되는 것임. ○ 특히 핵문제가 증대한 고비에 와있는 시점에서 현 停戰體制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無用化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南北韓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 北韓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함. 		
1994. 5. 3	5MW原子爐 핵연료봉 交替強行 表明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노심연료를 선택 측정하겠다는 것은 NPT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特殊地位를 무시하고 정기 및 비정기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음. ○ 우리가 이번에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과 지난 3월사찰시 제기되었던 완료되지 못한 사찰활동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査察團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IAEA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만일 IAEA가 우리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운영계획에 따라 노심연료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음. ○ 노심연료 교체는 기술적으로 보나 安全上 견지에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문제임. ○ 입회를 하던 안하던 시험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폐연료계수기와 열형광검출기 및 감시기재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료교체작업은 철저히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1994. 5. 9	<p>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 再開促求</p>
姜英勳 韓赤總 裁, 세계적십자 의 날 紀念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은 6.25 전쟁중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형기를 마친 후 자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戰爭捕虜 운운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北韓이 진정으로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지난 4.22 대북전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함. ○ 北韓側은 1987. 1.21 약속한 동진호 船員들의 송환을 지켜야 하며, 동진호 선원 이외에도 강제 납북된 어부, 민간항공기 승객, 승무원 등 4백여명의 무고한 우리側 억류인원을 송환해야 함. ○ 1992. 5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離散家族老父母 訪問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교체된 모든 노심연료를 IAEA의 통제하에 둘 것이며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되는 시점에 가서 그에 대한 측정도 허용해 줄 것임.
1994. 5. 6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p>對美平和協定 協商 거듭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美國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데 있음. ○ 南朝鮮 當局者들은 평화협정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함. ○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 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朝·美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北南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문제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9	교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적십자회담 또한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1994. 5. 12	북한 핵개발뎨 非核化共同宣言 무효 경고
李洪九 副總理 統一院長官, 신 문편집인협회 懇 談會 發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비핵화 선언은 無效化되는 것임. ○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핵과 경협과의 연계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 ○ 핵문제는 탈냉전 흐름속에 있는 北韓지도부의 선택에 달렸으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IAEA의 핵사찰·남북상호사찰·미-북회담·南北會談의 순서로 됨.
1994. 5. 14	IAEA의 연료봉 선별보관 허용 대북촉구
外務部 대변인 聲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사무총장이 추가사찰과 후속사찰 실시를 위해 수일내 IAEA 사찰팀을 北韓에 파견키로 한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 ○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통보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IAEA 사찰단 방북을 통해 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를 기대함. ○ 北韓에 대해 모든 연료봉 교체시 IAEA가 요구하는 연료봉 샘플의 선정 및 보관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함. ○ 北韓側이 IAEA가 요구하는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12</p> <p>北韓 林業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벌목공 歸順時 단호한 報復 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이 벌이고 있는 납치모략책동은 오늘 북남관계전망과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음. ○ 南朝鮮이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납치공작에 매달린다면 단단히 쓴 맛을 보게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 ○ 만약 그들중 단 한명이라도 잘못되는 경우 우리 벌목노동자들은 단호한 보복을 안길 것임.
<p>1994. 5. 12</p> <p>原子力總局長 박용남 IAEA 에 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5MW 原子爐 핵연료봉 交替始作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찰단원을 보내지 않아 부득불 연료교체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노심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0</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5MW 연료봉교체 即刻 中斷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연료봉 교체를 더이상 계속하지 않는 한 아직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IAEA의 발표에 유의함. ○ 北韓은 IAEA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p>1994. 5. 21</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벌목공 送還要求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벌목공들의 자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하고 있음. ○ 벌목공들은 자유와 복지를 찾아 우리측에 스스로 귀순해온 만큼 拉致 운운하며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p>1994. 5. 24</p> <p>李洪九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國 회 외무통일위 발언</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共同宣言 無效化 憂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한다면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현실임. ○ NPT 만료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온만큼 南北韓의 핵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시점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19</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등 送還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問題 보다 더 절박한 김인서·함세환 송환문제는 외면하면 서 마치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임. ○ 北出身 비전향수였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을 북에 데려다 병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제의에 지금까지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우리側 人道主義的 提議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 것을 촉구함.
<p>1994. 5. 21</p> <p>「祖平統」代辯人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歸順 북한벌목공 6명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은 정상적인 벌목노동을 하고 있던 우리의 공민 6명을 납치하여 서울로 끌여가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음. ○ 이번에 강제로 유인 납치해간 우리의 벌목노동자들을 무조건 당장 돌려보내야 하며 민족과 세계앞에 사죄해야 함. ○ 만일 돌려보내지 않고 납치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경우 北南關係 전반에는 엄청난 후파가 미치게 될 것이며 南側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임.
<p>1994. 5. 24</p> <p>北韓, 유엔軍側 과 接觸 (판문점)</p>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人民軍 판문점 대표부」 設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協商機構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開設했음을 미군측에 통보함. ○ 중장 이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명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任命했음을 통보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7</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消耗的 정치선전 即刻中止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이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 ○ 北韓은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다해야 함. ○ 北韓이 핵문제 해결의 토대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하루속히 정상가동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함. ○ 北韓은 소모적 정치선전은 물론,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하고 쌍방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함.
<p>1994. 5. 28</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核연료봉引出 即刻中斷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핵연료봉의 인출을 즉각 중단하고 NPT당사국으로서 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만약 北韓이 핵연료봉의 인출작업을 계속해 IAEA에 의한 계측 가능성이 상실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5</p> <p>「祖平統」書記局長 백남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8.15 民族大會」召集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側은 지난 4월 11일, 오는 8.15를 계기로 당국과 정당, 단체의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는 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고 北과 南, 海外에서 5명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중에 제1차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가질데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우리는 貴 當局이 민족대회소집 제안에 긍정적 호응을 보일 뿐 아니라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남측대표들을 빨리 선출함으로써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함. ○ 우리는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북측대표들로 정무원 사무국장 정문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백남준,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겸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영섭을 선출하였음을 알리는 바임.
<p>1994. 5. 28</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 北韓間 연료봉합상 決裂 合理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상에서 IAEA側은 노심연료의 선택 및 분리 보관 방법을 제기했으나 우리의 특수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수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쌍방 사이에 양해가 이룩되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31</p> <p>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安保理 議長聲明 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安保理가 5.30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지지함. ○北韓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더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경고함. ○北韓이 연료봉 인출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IAEA가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NPT당사국으로서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상에서 우리側の 방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 방법은 보다 보충 완성되게 되었음. ○ 우리는 이번 IAEA와의 협상과 입회활동을 통하여 平和的 核活動을 철저히 IAEA의 통제하에 두려는 우리의 선의가 최대한 표시되었다고 인정함. 	
1994. 6. 1	유엔安保理 議長聲明 受容拒否	
外交部 대변인 談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安保理가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이 IAEA가 그릇되게 내린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문제를 논의한 것은 천만부당한 것임. ○ 지금 노심연료 교체작업은 앞으로 우리의 특수지위가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IAEA가 要求하는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하거나 UN안보리가 제재나 압력을 가한다면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의 연속적인 공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1994. 6. 3	美·北韓會談 開催 希望表明	
美·北會談 北側 代表團長 강석주 談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존해 놓고 있으므로 朝美사이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노심연료의 측정은 물론 그보다 더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4</p> <p>李承坤 南北核統 制共同委 委員長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一方的 燃料봉交替는 非核化共同宣言 破棄行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이 5MW원자로 燃料봉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破壞하는 행위임. ○ 北韓이 NPT탈퇴를 위협하고 한단계 더높은 핵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민족전체의 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 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朝·美會談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키고 있는 기초도 허물어지게 될 것임. ○ 우리는 우리의 핵활동의 다음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더욱 擴大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 우리는 경제제재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국들에게 통지한 바 있음. 이 경우 제재에 참가하는 側은 물론 뒷받침하는 側들도 應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1994. 6. 6	IAEA의 特別查察 결의시 NPT 脫退威脅
原子力總局長 박용남, IAEA 事務總長에게 便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安保理와 관리이사회에 제출한 報告에 燃料봉의 차후측정은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사찰의 미명하에 우리의 군사대상을 하나하나 개방해 보려는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계속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지난시기 IAEA의 부당한 處事가 우리로 하여금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빚어내게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 ○ IAEA서기국이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UN에 끌고가 압력일면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IAEA의 부당한 구속을 받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平和的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8</p> <p>金泳三 大統領, 與野代表 招請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先 核問題解決, 後 對話 方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南北對話는 UN 안보리의 제재결정이 있는 뒤에나 가능할 것임. ○ 北韓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直面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6. 9</p> <p>李洪九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핵연료봉 單獨交替時 制裁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핵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 왔음. ○ 제재내용에는 조총련의 송금, 中國의 원유와 식량의 禁輸는 최소한 중간단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 北韓은 IAEA가 요구하는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 들이고, 원자로 운전상황 일지 등의 자료제출이 불가결함. ○ 만약 北韓의 재처리 활동 등 핵무기 개발로 인해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도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6. 11</p> <p>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理事會 決議案 遵守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理事會가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6.10)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환영함. ○ 北韓은 이 결의를 준수하여 과거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 핵투명성도 완전히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政府는 UN안보리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해 北韓 核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8</p> <p>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3段階會談 開催希望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美·北韓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의 핵시설에서 핵연료봉의 실험과 측정, 보존 등의 사찰을 보장하겠음. ○ 美國과 北韓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p>1994. 6. 9</p> <p>金日成, 美 카네기재단연구원 셀리그 헤리슨 면談</p>	<p style="text-align: center;">對美 一括妥結뎌 核開發 中斷用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대화에 의해 국교정상화 등이 일괄타결되고 경수로 전환을 위한 美國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현재의 원자력개발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 ○ 만약 美國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수로를 공여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방사화학연구소와 현재 건설중인 20만KW 원자로개발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 ○ 韓國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나라가 투자하고 있어서 많은 적을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함.
<p>1994. 6. 11</p> <p>朝鮮人民軍 板門店 代表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側의 軍停委 召集提議(6.6)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 군사정전 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한가. ○ 미국측은 정전기구를 되살리려하기 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로 나가야 할 것임.
<p>1994. 6. 13</p> <p>外交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脫退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로부터 즉시 脫退함. -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IAEA의 모든 부당한 결의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금후 IAEA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4 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IAEA 脫退 憂慮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를 탈퇴할 것이라는 北韓 當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北韓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데 대해 경고함. ○ 北韓이 NPT당사국으로서 IAEA의 모든 사찰을 수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UN 안보리에서 對北韓 제재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확고해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13	<p>도 拘束되지 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査察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宣言함. - 우리가 NPT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어떠한 不當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 - 이로부터 IAEA 사찰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임. ○ UN制裁는 곧 우리에게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再確認함.
1994. 6. 17	南北頂上會談 開催 用意表明
金日成, 카터 前美 大統領과 會談(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핵개발을 凍結하는 조건으로 3단계회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 ○ 核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며, 전환에 대한 美國의 지원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공식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 ○ 북남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은 北南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남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임. ○ 金泳三 大統領이 전에 頂上會談을 제안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 주기 바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8</p> <p>金泳三 대통령, 카터 前 美大統領 接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의 관련 時間・場所에 拘애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早速 개최할 것을 수락함.
<p>1994. 6. 20</p> <p>李榮德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관련 豫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의 제의에 대하여 민족의 僞원으로 보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내외상황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동의함.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는 6.28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예비접촉 대표단은 副總理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代表로 구성하고 隨行員은 5명 내외로 할 것을 제의함.
<p>※ 1994. 6. 22</p> <p>클린턴 美大統領 特別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7월초 3段階會談 開催 對北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2 北韓으로부터 미·북 3단계회담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는 서한을 접수했음. ○ 美國은 다음달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통보함. ○ 北韓은 3단계회담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 원자로 핵연료 장전 △ 사용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과 △ IAEA 사찰팀 북한잔류 및 감시장비 계속 유지를 확인했음. ○ 美國은 3단계회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7</p> <p>最高人民會議 議長 양형섭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民主黨代表의 訪北表明(6.14)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예한 정세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각계人士들이 속속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때에 南朝鮮 野黨 代表가 방문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李基澤 代表가 평양을 방문하면 기꺼이 환영할 것이며 그와 남북관계를 전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평양방문이 조속히 實現되기를 희망함.
<p>1994. 6. 22</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관련 豫備接觸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北南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 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방침임. ○ 오늘의 침예한 정세는 北南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 南側이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 행스럽게 생각하면서 北南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남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2	<p>치·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이 대화기간에 UN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제재노력을 유보할 것임.
1994. 6. 23	<p>南北頂上會談 豫備接觸 名單通報</p>
李榮德 국무총리 對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李洪九 (부총리) 대표 : 鄭鍾旭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표 : 尹汝雋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1994. 6. 28	<p>南北頂上會談 開催를 위한 合意書 採擇</p>
南北頂上會談개 최를 위한 豫備 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을 '94. 7.25~7.27 평양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延長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외 뜻에 따라 정함.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最高位級會談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임.
1994. 6. 23	美 · 北韓 제 3 단계 회담 7월초 開催豫定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2 클린턴은 우리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UN안보리에서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논의를 정식 철회하고 제 3 단계 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혔음. ◦ 제 3 단계 朝 · 美 회담은 7월 첫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제 3 단계 조 · 미 회담이 진행됨으로써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朝 · 美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룩되기를 기대함.
1994. 6. 25	南北頂上會談 豫備接觸 名單通報
政務院總理 강성 산 對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대표 :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 대표 : 백남준(정무원 책임참사)
1994. 6. 27	美 · 北韓 제 3 단계 회담 7.8 제네바에서 開催
外交部 대변인 「報道」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 미 쌍방은 제 3 단계 朝 · 美 회담을 '94. 7. 8 제네바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했음. ◦ 회담에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朝 · 美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예견됨.
1994. 6. 28	南北頂上會談 개최를 위한 合意書 採擇
南北頂上會談개 최를 위한 豫備 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94. 7. 25~7. 27 평壤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함.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8	<p>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代表接觸에서 토의, 합의함.</p> <p>대표접촉은 '94. 7. 1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짐.</p> <p>○ 雙方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霧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努力함.</p> <p>* 남측대표 : 李洪九, 鄭鍾旭, 尹汝儁 북측대표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p>
<p>✓ 1994. 7. 1</p> <p>南北頂上會談 제1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實務節次問題 協議</p> <p>○ 代表團 구성과 규모, 會談形式,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협의</p> <p>* 南側代表 : 尹汝儁, 具本泰, 嚴翼駿 北側代表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p>
<p>1994. 7. 1</p> <p>韓國林學會 '94 학술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솔잎 흑파리 共同研究 대북제의</p> <p>○ 금강산 등 산림보호를 위해 남북한 학자가 만나 솔잎 흑파리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p>
<p>✓ 1994. 7. 2</p> <p>南北頂上會談 제2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을 위한 實務節次 合意書」 채택</p> <p>○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p> <p>○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p> <p>○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p> <p>○ 실무자접촉 : 7.13~16 평양, 각기 17명 참가</p> <p>○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p> <p>○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p> <p>○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집」</p> <p>○ 기타 실무절차 : 남북고위급회담 관례 준용</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8	<p>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代表接觸에서 토의, 합의함.</p> <p>대표접촉은 '94. 7. 1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努力함. <p>* 북측대표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 남측대표 : 이흥구, 정종욱, 윤여준</p>
1994. 7. 1	<p>南北頂上會談 實務節次問題 協議</p>
南北頂上會談 제1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협의 * 北側代表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 南側代表 : 尹汝僑, 具本泰, 嚴翼駿
1994. 7. 2	<p>「南北頂上會談을 위한 實務節次 合意書」채택</p>
南北頂上會談 제2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 ○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 ○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 ○ 실무자접촉 : 7.13~16 평양, 각기 17명 참가 ○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 ○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 ○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집」 ○ 기타 실무절차 :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준용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5</p> <p>南北頂上會談 豫 備接觸 李洪九 首席代表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通信 및 警護 實務接觸 참가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익현(청와대 통신국장) · 박영환(청와대 공보비서관, 방송담당) · 정용대(청와대 통신심의관) ○ 警護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주(청와대 경호국장) · 정한유(청와대 경호부국장) · 정해창(청와대 경호부국장)
<p>1994. 7. 7</p> <p>南北頂上會談 通 信實務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實況中繼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 기간중 남북간 通信網 가동과 放送中繼에 따른 기술 적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細部事項은 실무접촉단 방북(7. 13~16)시 협의키로 함. * 南側代表 : 유익현, 박영환, 정용대 北側代表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립
<p>1994. 7. 8</p> <p>南北頂上會談 警</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警護節次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경호절차와 실무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6</p> <p>南北頂上會談豫備 接觸 북측단장 김 용순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通信 및 警護實務接觸 참가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호(체신부 국장) · 한명환(체신부 부국장, 방송담당) · 이영립(체신부 과장) ○ 護衛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 춘(호위총국 부장) · 리재웅(호위총국 참모) · 리금철(호위총국 참모)
<p>1994. 7. 7</p> <p>南北頂上會談 通 信實務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實況中繼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통신망 가동과 방송중계에 따른 기술 적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접촉단 방북(7. 13~16)시 협의기로 함. * 北側代表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립 南側代表 : 류익천, 박영환, 정용대
<p>1994. 7. 8</p> <p>南北頂上會談 警</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警護節次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경호절차와 실무문제에 원칙적으로 합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護實務接觸 (판문점 통일각)</p> <p>1994. 7. 8</p> <p>北韓·美國, 3단계 高位級會談 개최 (스위스 제네바)</p>	<p>의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접촉단 訪北(7.13~16)時 협의기로 함.</p> <p>* 北側代表 : 최 춘, 리재웅, 리금철 南側代表 : 김광주, 정한유, 정해창</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北韓側 立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畵단시일내 도입 ○ 무력불사용 및 불위협 법적보장(추후 평화협정, 주한미군 논의) ○ 조·미관계 정상화 ○ 상기 해결시 NPT지위, IAEA사찰, 비핵화공동선언 실천보장 <p>(美國側 立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 재처리중단, 폐연료봉 제3국 이관 ○ 경수로, 관계정상화, 무력불사용문제 협의가능 ○ 평화협정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며 주한미군문제는 논의불가
<p>1994. 7. 11</p> <p>最高人民會議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對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延期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의 유고(7.8김일성 사망)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 會談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하는 바임.
<p>1994. 7. 11</p> <p>駐 유엔 副大使 김수만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凍結 政策」持續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核問題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은 金正日體制 출범후에도 변함이 없으며, 장례기간이 끝나면 미·북한간 교섭이 재개될 것임. ○ IAEA사찰관 영변잔류, 폐연료봉 재처리중지, 연료봉재장전 중지 등 대미약속은 계속 유지될 것임.
<p>1994. 7. 14</p> <p>「祖平統」대변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 弔問團 訪北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각당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哀悼의 뜻을 표하고 弔問을 보내오며 平壤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하여 謝意를 표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18 李榮德 국무총리 國務會議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金日成은 民族不幸의 責任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은 民族分斷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責任者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음. ○ 최근 일부 재야 및 운동권학생과 사회일각에서 조전발송, 조문단 파견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임. ○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기조는 一貫性있게 견지할 것이며, 南北頂上會談 개최의 원칙은 有效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음.
<p>1994. 7. 21 統一院, 內務部, 文化體育部 공동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94 南北인간띠잇기대회 自制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에 개최코자 하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적극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위해롭지 않는 한 민간의 자율적인 통일운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p>1994. 7. 23 韓·日 頂上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前提 경수로 支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입장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며,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當事者原則이 중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은 관문점을 통과하여 올 수 있고 제 3국을 경유하여 올 수도 있을 것임. ○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身邊安全을 保障하며 모든 便宜를 提供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새지도부는 하루빨리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촉구함. ○ 現在와 未來는 물론, 過去에 대해서도 北韓核의 透明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非核化共同宣言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 核問題의 해결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25</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會談에 南北關係改善 先決條件 不當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단계 朝·美會談에서 경수로제공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조·미사이에 적대관계해소, 신뢰조성문제 등이 해결되어 조·미관계가 실제적으로 개선되면 북남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제3단계 조·미회담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조·미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태도에서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에서 북남관계개선을 朝·美關係改善의 先決條件으로 내세우는 경우 核問題解決에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명백함.
<p>1994. 7. 31</p> <p>朝鮮宗敎人協議會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인간띠잇기대회 관련 實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94남북인간띠잇기대회 남측본부는 올해 인간띠잇기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할데 대한 제안을 해왔음. ○ 우리는 이 제안이 겨레의 통일 의지와 열망을 높이고 민족이 하나임을 과시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 ○ 우리는 이번 대회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8.5 10:00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본부 대표들과 마주앉아 공동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p> <p>金泳三 大統領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拉北抑留者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억류자 송환문제(고상문 등)는 인권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 국제사면위원회와 별도로 UN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사등 국제기구를 통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p>1994. 8. 5</p> <p>宋榮大 통일원 차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原則 有效 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 개최 원칙이 여전히 有效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p>1994. 8. 8</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吸收統一의 기회가 오면 實現 立場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政府 立場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 노동신문 論評</p>	<p>경수로問題 해결이 核問題解決의 시금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朝·美會談이 성과적인 것으로 되려면 상호신뢰와 평등의 원칙하에서 회담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함. ○ 만일 제3자의 불합리한 요구가 회담에서 제기된다면 핵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가 될 것임. ○ 一括妥決方式이 3단계 朝·美會談에서 합의된다면 조선반도 핵문제는 해결될 것임. ○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임. 		
<p>1994. 8. 2 朝鮮人權研究協會 聲明</p>	<p>고상문을 의거入北者로 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화국에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권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무슨 수용소라는 것도 없음. ○ 고상문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에 찾아온 의거자들 중의 한 사람임. ○ 남조선에서 파쇼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즉시 철폐하고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과 각계인사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함. ○ 특히 김인서·함세환을 무조건 우리 공화국으로 送還하여야 함. 		
<p>1994. 8. 8 朝鮮宗敎人協議會 대변인 談話</p>	<p>南北인간띠잇기대회 不許 對南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번 처사를 民族의 統一念願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으로, 우리 종교인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的 次元에서 흡수통일의 기회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 ○ 이왕 기울어져가는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안을 채택, 실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함.
1994. 8. 9	拉北人士 送還促求
國會 외무통일위원회 對北決議文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고상문씨등 남북인사들이 당장 송환되고 가족과 재상봉되어야 함. ○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인사의 생사확인파 원상회복을 위한 송환을 달성하도록 함. ○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면위 등 인권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허용해야 함. ○ 북한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8	<p>규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조의표시를 탄압한데 이어, 종교인들의 인간띠잇기대회 마저 가로막음으로써 입버릇처럼 외어대는 和解와 統一이라는 것도 한낱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냄.
1994. 8. 10 北韓赤十字會 대 변인 記者會見	<p>拉北人士를 의거 入北者로 捏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전래의 예의풍습과 인륜도덕마저 무시하고 弔意도 표시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人權을 떠들면서 의거자들에게 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응당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은 억류해 두면서 依據 入北者들을 그에 대치시키려 하는 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모략술책이며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임.
1994. 8. 11 「汎民族」북측분 부 代辯人 발표	<p>汎民族大會 北側代表團 서울파견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6 제2차 범민련 共同議長團會議 合意에 따라 8.14판문점을 통하여 10명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하며, 이보다 하루앞서 5명의 대표들을 도쿄에 보내게 됨. ○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탄압과 분열, 와해책동에 단결된 모습으로 대처하여 汎民族大會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리라고 확신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2</p> <p>姜英勳「韓赤」 總裁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 總裁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은 조속히 재개되어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相逢하며 自由往來할 수 있는 인도의 가교를 놓아야 함. ○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단 교환도 다시 이어져야 하며, 합의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 ○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가 밝혀져야 하며 이제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같은 과제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2 「祖平統」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이 南北頂上會談 無效化 시켰다고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業務를 주관하는 통일원 장관이라는 자가 이른바 政府立場으로 감히 吸收統一 운운한 사실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 ○ 文民을 표방하는 김○○일당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나선 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을 선포하고 北南最高位級會談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한 계획적인 행위임. ○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미 한달전에 벌써 頂上會談問題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김○○까지 나서서 회담을 서울에서 먼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 것도 북남최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쌍방 合意事項을 백지화하고 吸收統一 야욕을 보여준 것임.
<p>1994. 8. 12 美 · 北韓 3단계 제 1차 고위급 회담 (8.5~12,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美 · 北韓, 「合意發表文」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93.6.11 朝 · 美 共同聲明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다음 사항들이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음. 1. 조선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is prepared to)미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2백만 KW(2,000MW)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며 그 동안 조선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 <p style="margin-left: 2em;">조선은 경수로와 대용에너지를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차제로 5만KW, 20만KW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IAEA의 감시하에 두기로 하였음.</p> 2. 朝 · 美는 정치,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자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들(diplomatic representation)을 설치하고 貿易 및 投資 障壁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3. 조선반도의 非核化와 平和 및 安全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선은 조선반도의 非核化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3 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間「合意發表文」 긍정 評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合意發表文이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상호 지향해야 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함. ○ 北韓이 NPT에 잔류,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한반도 非核化 共同宣言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판단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2</p>	<p>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한 용의를 표명하였음.</p> <p>4. 조선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음.</p> <p>이번 會談에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음.</p> <p>쌍방은 조선의 흑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네르기의 보장,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專門家級 協商들이 필요하다고 合意하였음.</p> <p>이에 따라 전문가급 협상들이 조선과 미국 혹은 합의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게 됨.</p> <p>朝·美는 회담을 휴회하고 94.9.23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p> <p>그때까지 美國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경수로 제공 담보를 주기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조선은 외교부 강석주 제1부부장과 미국무성 갈루치 차관보사이에 94.6.20, 6.22 교환된 메시지들에서 합의된 核活動의 凍結과 擔保의 連續性을 維持하게 됨.</p>
<p>1994. 8. 13</p> <p>外交部 副部長 강석주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查察 絶對不可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非正常關係에 있는 우리와 미국이 도달해야 할 최종 종착점들을 확고히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룩한 것임. ○ 경수로發電所 提供과 補償問題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그 이행의 필수적인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미사이에 관계 正常化 조치들이 뒤따르게 됨. ○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 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 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補償措置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자는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5</p> <p>金泳三 大統領 光復節 49주년 慶祝辭</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共同體 統一方案」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人間中心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 ○ 統一은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함. ○ 정부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民族 1國家로 統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 統一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 ○ 北韓 當局은 구시대적 對南赤化戰略을 마땅히 拋棄해야 함. ○ 人權을 改善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하며,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억류자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안정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랍. ○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임. ○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책임지고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데 대해 우리와 합의하였으며, 미국이 경수로 提供問題를 어떤 나라들과 토의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임. ○ 우리는 特別査察에 대해 인정해 본적도 없고 절대로 접수할 수 없음. 핵활동의 투명성 보장문제는 IAEA의 不公正性이 완전히 해소되는가 안되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됨. ○ 폐연료봉 처리문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지는 것이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본 것은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長期乾式保管하는 조건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외교대표부 설치에서 연락사무소로 하겠는가 연락대표부로 하겠는가 하는 것과 그 시기문제는 실무협상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 ○ 우리가 NPT에 언제부터 복귀하는가 하는 것은 IAEA의 不公正性이 완전히 해소되고 朝·美關係가 정상화될 때에 가서 결정될 것임. 		
1994. 8. 15	姜英勳 韓赤總裁의 회담제의 拒否		
노동신문 論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당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人道主義的 문제들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왕래니 방문단 교환이니 회담재개니 하는 것은 여론에 대한 우롱임. ○ 이른바 拉北者問題란 남조선 사회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임. ○ 남조선 적십자사가 당장 관심하고 해결해야 할 人道主義 문제, 人權 문제는 남조선 안에 있음. ○ 파쇼당국의 시녀 나팔수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國家保安法 廢止를 주장해야 하며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를 해결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15	<p>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우리 民族共同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8 노동신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共同體 統一方案」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이요 단계요 하며 統一을 늦잡은 것 자체가 거래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임. ○ 統一問題, 北南關係問題에 역점을 두었다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統一은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떠들은 것은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 예속체제, 파쇼독재체제를 北에까지 옮겨놓겠다는 것임. ○ 그 무슨 合意書와 共同宣言 履行이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느니 떠든 것은 분열주의적, 반역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역겨운 언동임. ○ 人權問題에 대해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하는 인권유린으로 하여 상전으로부터 책망까지 들어온 김○○로서는 들고나설 낮찍이 없음.
<p>1994. 8. 20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 전제 경수로 도입 不可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결코 경수로나 받겠다고 自主權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군사대상에 대한 査察을 허용할 수 없음. ○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면 特別査察을 수용해야 한다는 日本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주장에는 결국 朝美 合意聲明 자체를 뒤집어 엮고 또다시 조미사이에 대결을 고취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우리가 인정해 본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른바 特別査察이라는 것을 문제해결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복잡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2</p> <p>韓昇洲 外務部長 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查察 名稱·形式 不拘礙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실질적으로 특별사찰에 준하는 과거책 투명성 보장을 해준다면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 ○ 특별사찰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주는 것은 사태해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
<p>1994. 8. 25</p> <p>통일안보정책 조 정회의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查察은 美北관계개선의 必須要件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關係 진전이나 美·北關係 개선에 필수조건임. ○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實質的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이며, 또한 우리정부의 입장이기도 함. ○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앞으로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韓·美頂上間에 合意된 사항임. ○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美·北會談과 관련하여 韓·美간의 긴밀하고 철저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북사이에 「의미있는」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제반문제의 해결에 필수조건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4</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 포커스렌즈訓練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를 공격목표로 정하고 진행되는 綜合的이고 立體的인 대규모 지휘훈련으로서 핵시험 예비전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임. ○ 美 군부 保守勢力이 남조선 파쇼일당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분명히 朝美合意精神과는 심히 어긋날뿐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 의식적이고 모험적인 적대행위이며 北南對話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대결소동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 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中國의 軍停委 撤收에 遺憾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정위의 自國 代表團을 召還키로 한데 대하여 遺憾스럽게 생각함. ○ 현재 北韓 核問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協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함. ○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現 停戰協定體制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合意에 의한 平和體制가 구축될 때까지 現 政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駐韓 유엔사, 북한에 政전협정 유효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協定은 체결당사자인 유엔사, 중국, 북한 3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 중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政전협정체제는 유효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7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경수로 拒否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제 3 단계 朝·美會談에서 한국형 경수로 支援問題가 낙착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경수로 제공문제는 철두철미 朝·美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간참할 문제가 아님. ○ 제 3 단계 朝·美會談에서 경수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조선 경수로 문제는 애당초 안중에도 둔 적이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경수로 문제를 공간으로 朝·美會談에 끼어들어 核問題 解決과 朝·美關係 改善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북남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p>1994. 9. 2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中國, 軍停委 代表團 撤收 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交部 송호경 부부장은 8. 30 중국 외교부 당기선 부부장과 조선 반도의 공고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서 지난 40여년동안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음. ○ 쌍방은 현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로 바뀌어야 할 절박성에 대해 인정했음. ○ 特使는 중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군정위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板門店 代表部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해 통보했음. ○ 중국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군정위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했으며 軍停委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상태를 고려해 군정위 중국측 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0 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제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됨. ○ 平和協定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p> <p>外交部 代辯人 「報道」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專門家會談 開催日程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2 朝·美 合意聲明에 따라 요즘 진행된 뉴욕 實務接觸에서는 전문가급 협상들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쌍방은 연락사무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 10 平壤에서, 경수로 제공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 10 베를린에서 각각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p>1994. 9. 9</p> <p>外交部 代辯人 談話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北美會談에서 平和協定問題 협의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제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한 절박한 문제중 하나임. ○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임.
<p>1994. 9. 13</p> <p>美·北韓, 평양 專門家 會談開催 (9. 10 ~ 13)</p>	<p style="text-align: center;">쌍방 連絡事務所 開設관련 「共同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전반적인 합의의 테두리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와 관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협상은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음. ○ 쌍방은 連絡事務所 개설에 관한 協商結果를 각기 자기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4</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제 13회 離散家族의 날 격려사</p>	<p style="text-align: center;">拉北者 早速送還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리와 함께 平和와 繁榮의 길을 걸어 나갈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北韓에 억류되어 있는 400여 拉北者들을 인도 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함. ○ 우리는 北韓이 離散家族問題를 비롯한 남북관계개선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協力과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4</p> <p>美·北韓, 베를린 專門家會談 개최 (9. 10 ~ 14)</p>	<p>北韓核問題 解決關聯 「共同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 기술로 교체하는 문제,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분, 대용 에너르기 보장을 포함하여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쌍방은 포괄적이며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朝·美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더 討議하기로 합의하였음. ○ 쌍방은 이번 협상결과를 자기 정부들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p>1994. 9. 16</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特別査察 拒否 거듭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査察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反共和國 압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음. ○ IAEA 서기국이 特別査察問題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IAEA의 不公正性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계속 침해하며, 핵문제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책동임. ○ 우리의 核問題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朝·美會談을 통해서만 解決될 수 있음. ○ IAEA 서기국의 일부계층들이 국제회의·국제기구 공간을 이용하여 계속 압력에 매달린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 		
<p>1994. 9. 23</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特別査察 壓力땀 흑연감속로 凍結 철회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경수로에 목이 매어 군사대상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 ○ 만일 불순세력들이 특별사찰을 계속 고집하면서 경수로 제공에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는 흑연로체계를 동결시킬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않음. ○ 核問題의 근원적인 解決方途가 특별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있음. 		

■ 1994年 9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5</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총회의 査察促求 決議案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23 채택된 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시도이며 그것을 단호히 배격함. ○ 만일 우리에게 대한 압력도구로 계속 악용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취한 선의적 조치들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9. 25</p> <p>北韓 政黨·社會 團體들 對南 便 紙</p>	<p style="text-align: center;">檀君陵 竣工式에 南韓人士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릉 개건이 완공되어 오는 10월 초순에 竣工式을 거행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을 招請함. ○ 平壤訪問路程은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하여도 무방함. <p>※ 초청인사(74명) : 이기택, 김상현, 이부영 이우정, 김대중, 김동길, 박찬종, 이종찬, 강영훈, 한완상, 김근태, 백기완, 박한상, 박용길, 권종대, 계훈제, 이창복, 김상근, 박순경, 강희남, 양규현, 윤정식 등</p>
<p>1994. 9. 27</p> <p>人民武力部 대변 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美航母 東海配置 위협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위선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음. ○ 미국이 무력대결로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음. ○ 우리 인민군대는 特別査察을 통하여 군사대상을 개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會談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미군부 보수세력들은 50년대의 치욕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
<p>1994. 9. 30</p> <p>檀君陵 복구위원 회 대변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檀君陵 준공식에 南韓人士 방북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의 一部 人士들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하여 平壤 訪問 의사를 표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3</p> <p>姜英勳 「韓赤」 총재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地域 콜레라 共同防疫措置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페스트가 東北亞 地域에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北韓地域에서의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南과 北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북한 적십자측에 제의함. ○ 우리는 일차적으로 필요한 醫藥品을 提供할 준비가 다되어 있음을 알림. ○ 우리 赤十字人들은 진정으로 人道主義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함.
<p>1994. 10. 5</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제의 有效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만큼 북측이 우리측에 제의하는게 순리임. ○ 회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협의해야 할 것임.
<p>1994. 10. 8</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 未타결시 安保理회부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會談에서 핵문제가 끝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UN 安保理에 회부하는 수 밖에 없음. ○ 北韓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지원과 기술·자본 지원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T/S 훈련도 재개할 수 밖에 없음. ○ 核問題를 해결하기 전에는 경제협력 등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正道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招請便紙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이미 放送으로 보낸 우리의 초청편지가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림. ○ 우리는 10. 1 부터 板門店에 해당하는 영접인사들을 내보내 남측에서 오는 각계 인사들을 맞이할 것이며, 만일 베이징을 경유하여 平壤을 訪問하려는 인사들은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따듯이 영접할 것임.
1994. 10. 3 檀君陵 복구위원회 대변인 記者 會見	<p>南韓人士 도착지연으로 檀君陵 竣工式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招請한 바 있는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도착할 시각을 기다리며 예정된 檀君陵 竣工式을 미루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檀君陵을 개건하여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도모하고 5천년 역사국의 위상을 선양하려는 金日成의 애국애족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됨.
1994. 10. 5 平壤放送 論評	<p>南側の 콜레라 共同防疫措置 제의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黨과 政府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졌음. ○ 오늘 우리 인민들은 콜레라라는 말은 보도를 통해서 듣거나 의학사전을 통해서만 알고 있음. ○ 무슨 콜레라 확산이요 뭐요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남을 몰고 넘어지는데 이골이 난 괴뢰들만이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수작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4</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國監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 5개원칙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核問題 해결을 위한 5개원칙은 － 북한 핵개발 중지·동결 － 한반도 전쟁재발 예방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 남북당사자간 해결방향으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포함한 남북 對話의 재개 － 北韓 核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IAEA의 기준·판단을 중시 － 대북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韓國이 중심이 되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6</p> <p>당비서 김기남, 金日成 100일제 追慕辭</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聯邦制 統一方式 및 對南통일전선전술 등 고수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金正日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革命的 規律과 秩序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저버리고 동족의 불상사를 악용하여 民族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며 배신의 길로 나가는 남조선 문민통치배들은 北南關係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고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 ○ 우리는 祖國統一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연방제방식으로 90년대에 기어히 祖國을 통일할 것임.
<p>1994. 10. 17</p> <p>美·北韓 3단계 제 2차 高位級 會談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北韓 基本合意文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韓 쌍방은 基本合意文의 주요내용에 합의하였으며, 10. 21 서명 교환기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文 主要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査察등 과거혁의혹 해소 · 핵활동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8 韓昇洲 외무장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합의 韓半島平和 기초마련 評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금번 합의가 北韓 核問題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平和維持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함. ○ 이번 협상의 결과로 북한은 核擴散禁止條約에 완전 복귀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락하였으며, 現在와 未來의 핵활동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존 핵시설을 해체하기로 약속하였음.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게 되면 過去와 現在, 未來의 핵투명성은 보장됨. ○ 北韓은 또한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 이행과 南北對話의 재개에 합의하였음.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겨, 南北關係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北韓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南北和解와 協力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음. ○ 금번 美北合意는 대화에 의한 核問題 解決이라는 기본입장에 따라 그동안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공동노력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이해당사국 및 유엔, IEAE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임. ○ 政府는 이제 그동안 南北韓 關係와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되어온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외교정책과 통일노력을 펼쳐 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 연료봉 처리 · 北韓의 NPT 지위문제 해결 · 대체에너지 제공 · 北南對話 재개 · 경수로 지원 · 美·北韓 관계개선
1994. 10. 18	<p>未轉向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送還要求</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 대리 이성 호 「北赤」 창립 48돌 紀念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十字會談을 비롯하여 北南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반대화적 행위 때문임. ○ 南朝鮮 적십자사가 분열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들을 복송해야 함. ○ 남조선 적십자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남조선 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임.

■ 1994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9</p> <p>李敏燮 文化體育 部長官 제35회 전국 민속예술경 연대회 개막식사</p>	<p style="text-align: center;">'95 民俗藝術競演大會 南北共同開催 對北提議</p> <p>○ 光復 50주년을 맞는 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南北韓이 동시에 참가해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1994. 10. 21</p> <p>韓·美 國防長官 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 中斷合意</p> <p>○ 美·北 핵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T/S 訓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20</p> <p>外交部 대변인 「報道」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金正日, 北美會談 합의문에 署名 지시」 宣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최고사령관 金正日是 朝·美會談 우리측 단장에게 基本合意文에 서명하도록 지시를 주었음. ○ 基本合意文은 核연료체계의 경수로체계의로 교체문제, 朝·美 사이의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전파방지체제 강화문제 등 核問題 解決을 위해 조·미 쌍방이 해야할 바에 대하여 공약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됨. ○ 基本合意文에는 核問題 解決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내놓은 주도적 발기들이 충분하고 만족하게 반영되어 있음. ○ 基本合意文이 이행되면 朝·美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라는 것은 중국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임.
<p>1994. 10. 21</p> <p>美·北韓 3단계 高位級會談 종료 ('94. 9. 23 ~ 10. 21,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基本合意文」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쌍방은 朝鮮의 核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해 협조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美國은 2003년까지 총 200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함. 2) 美國은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동결에 따른 에너지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대용에너지는 열 및 전기생산용 증유로 제공함. 3) 朝鮮은 核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함. 경수로 대상 건설기간 朝·美는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 1994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21	<p>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조함.</p> <p>4) 朝·美는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함.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 에네르기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흑연감속로 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 데서 제기되는 연관문제들을 토의함.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함.</p> <p>2. 쌍방은 政治 및 經濟關係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감.</p> <p>1) 쌍방은 合意文 서명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완화함.</p> <p>2) 쌍방은 專門家協商에서 영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함.</p> <p>3) 朝·美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킴.</p> <p>3. 쌍방은 조선반도의 非核化,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美國은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에 제공함.</p> <p>2) 조선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p> <p>3) 조선은 이 基本合意文에 의하여 對話를 도모하는 雰囲気가 조성되는데 따라 北南對話를 진행할 것임.</p> <p>4. 쌍방은 국제적인 核傳播防止體系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조선은 NPT의 成員國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것임.</p> <p>2)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朝·IAEA 담보협정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됨.</p> <p>3)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은 IAEA와 핵물질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의 담보협정을 완전히 이행함.</p>

■ 1994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21</p> <p>外交部 부부장 강석주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美合意文 역사적 文件으로서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文은 조선반도의 核問題解決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역사적 문건으로서 朝·美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는 基本合意文에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우리가 이번 核活動의 現在와 未來를 동결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核開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음. ○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朝·美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가서 우리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것임. ○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金正日을 조선의 최고지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존칭하고 있음.
<p>1994. 10. 25</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감스럽게도 남측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하게도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그들의 가공한 정상을 외면하고 오늘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은 남측적십자사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당국의 압력과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음. ○ 남측적십자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무조건 시급히 송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
<p>1994. 10. 29</p> <p>中央放送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中止 기만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수리 '94 합동군사연습은 朝·美 基本合意文을 불사르고 정세를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임. ○ 마지못해 朝·美 合意文을 받아들이고 T/S '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와 맞먹는 독수리 '94 합동군사연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31</p> <p>金泳三 大統領, 中國 李鵬총리와 회담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실질적인 南北對話 早速再開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合意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南北韓 사이의 실질적인 對話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음. ○ 金 大統領은 「북한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공존공영의 정신에 호응해 온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 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29	<p>을 벌여놓음으로써 그것이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p> <p>○ 戰爭演習이 강행된다면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北南關係는 더욱 더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나가게 될 것임.</p>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追錄)
〈1993. 11 ~ 1994. 10〉

1994年 11月 21日 發行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非 賣 品〉

